

# 날마다 첫 매상은 이웃에게...

사단법인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 1983년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 자비원 봉사회 후원회 회장을 맡아 불교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2011년 11월 미소원을 개원하고 현재 부산 오륜소년원 멘토링 사업, 법무부 부산 구치소 재소자 교화, 결핵환자 살리기, 제3세계 우물 파기, 독거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반찬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 법무부 장관상, 2009년 보건 복지부 장관상, 2012년 대한민국 국민나눔대상 복지부장관상, 2014년 부산시 자원봉사 금배지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터전이 된 부산의 곳곳에는 한국인의 삶 속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부산의 3대 재래시장인 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은 전쟁 후 역척스럽게 살아왔던 흔적이 남아있다. 범일동에 모여 있는 3대 시장은 하루 벌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인들의 희망이었고,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의 직장이었으며,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의 집이었다.

1970년 후반, 3대 시장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다. 바로 미소원 이사장 장유정 불자(60)다. 처음 그녀가 내민 손은 빈손이었다. 그녀는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으려 다녔다. 시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1000원씩 후원을 받아 자신을 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봤다. 어려울수록 실천한 나눔 활동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라던 지론에서였다. 나눔의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3대 시장 상인들을 이끈 장유정 이사장을 구랍 23일 미소원 법당에서 만났다.

### 나눔은 살아가는 힘

장유정 이사장의 어릴 적 삶은 너무나 고단했다. 6남매 중 첫째인 장 이사장은 1972년 중학교 3학년 때 16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몸이 편치 않았던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였다. 장 이사장은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시장으로 나서야 했다.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릴 시간도 없이 역척스럽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25세가 되어 드디어 가게를 열고 자리를 잡아가며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장 이사장은 나눔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들은 방송 '홀린 출발 김동업'이란 방송 사연 때문이라고 했다. 6·25이후 단칸방에 살던 한 가족이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사연을 듣고 가슴이 하루 종일 두근거렸다고 했다.

"단칸방에 살면서 자녀들이 공부방이 없다고 투덜거려야 사과 상자 박스를 가져와 용돈이 생길 때마다 그 박스에 넣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란 자녀들은 그 박스에 돈을 넣을 때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시장에서 옷을 팔던 장 이사장은 아침 첫 판매의 수익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루 매상의 10분의 1을 기부하며 액수를 늘려갔다. 그렇게 매일 기부활동을 하다 보니 혼자서 하기 보다는 주위에 있는 도반들과 함께 했으면 했다. 그 후 장 이사장은 시장을 돌며 그동안 쌓은 인연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부금을 모아 후원을 하던 중 부산 미용사 정 각 스님이 운영하는 자비원 봉사회를 알게 됐어요. 그 때는 불교계에 봉사단체가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너무나 신선했죠."

자비원을 방문 했을 당시 그곳의 환경은 열악했다. 도움을 손길을 바라는 곳은 너무나 많았다. 자비원과 발맞춰 장유정 이사장은 시장에서 도반

들과 함께 '자비의 종소리'라는 후원단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자비원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후원을 자처했다.

고아들이 머물던 성우원, 재활원, 양로원 곳곳을 다니며 후원 활동을 자비원과 함께 펼치던 장 이사장은 1983년 자비원 봉사회 후원회 회장을 맡아 3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지원을 하게 된다.

### 자비의 종소리, 곳곳에 자비 온정으로

장유정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후원회 '자비의 종소리'는 매달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5000원, 10000원씩 시대에 따라 금액도 점차 늘려가고 회원도 500여명에 이르게 됐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실명 위기의 환자를 후원하고 국립마산결핵병원을 방문해 가족이 없는 환우를 위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금 지급, 독거어르신 반찬지원

### 단칸방 가족, 타인 돕기 보며 발심

### 옷가게 판매 수익 일부, 기부 시작

### 주변 설득해 '자비의 종소리' 결성

### 30년 동안 500여 명 나눔실천 이끌어

### 2011년 미소원 개원, 전문상담 진행

### "봉사 함께하는 도반 있어 행복해요"

등 활동도 펼쳤다. 또 정토회와 연계해 인도 결핵 환자 치료에도 나섰다.

"4년에 걸쳐 인도 결핵환자 108명을 살렸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나라 돈 15만원이면 그들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후 3년 만에 다시 108명을 살렸고 지난해 3차로 108명을 살렸습니다." 총 324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원활동은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았다. 장애인에 관한 컴퓨터 구입에 자비의 종소리 회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던 물건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의류, 미역, 신발, 양말 등 각종 물건들이 바자회에 나왔다.

"장애인들은 밖에 외출하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라도 있으면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장애인 시설에 컴퓨터를 넣어 주기 위해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비의 종소리 후원모금 활동과 함께 장 이사장은 봉족일마다 '조방연등회'를 결성하고 범일동 곳곳을 연등으로 가득 채우고 법회를 열었다.

당시 성우원 어린이들의 수화공연 및 다양한 신행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3대 시장은 연등이 화려하게 걸려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으며 불축일 때는 시장 상인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 도반의 인연이 남편 잃은 슬픔 달래

이런 도반들의 인연은 장 이사장의 개인적인 아픔도 치유했다. 장 이사장은 6남매의 뒷바라지를 하던 1979년 결혼을 했다.

"남편이 좀 몸이 약하고 천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도 하며 아이들도 낳고 잘 키우고 살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1994년 7월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은 아침이 늦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장 이사장은 준비도 생각도 못했다. 39세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장 이사장은 매일 밤, 일을 끝내고 나면 남편을 품은 통도사 삼덕공원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무덤 앞에서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읽었다. 새벽 두시 까지 통도사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49일을 보냈다.

"그 때 도반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저에게 1000원씩 주머니를 털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며 매일 마수(하루 장사 시작 후 첫 수입)를 내밀고 하던 그들이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장 이사장의 오랜 나눔 활동으로 시장에서 만난 인연들은 도반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용기와 격려는 제가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 어느새 제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만 있더군요. 인덕이 있다는 말을 평생 시에 자주 듣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눔을 실천하자며 그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했을 때 함께 뜻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제 인생의 모습과 환경은 모두 그 조건에 맞춰 바뀌어 있는 것이죠."

### 미소원 개원, 신행과 봉사를 하나로

2011년 11월 11일, 부산을 대표하는 세 시장의 한가운데 미소원이 개원을 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그곳에 이사장과 평생을 함께한 도반들이 모였다.

"40대였던 그분들이 이제는 70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분들은 함께하며 봉사하시고 마음을 내어주십니다. 이곳 미소원은 그분들이 주인이며 그분들이 쉬는 곳이며 그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장 이사장은 그분들을 위해 평생을 함께 기도할 도반으로 봉사하고 살아가기 위해 미소원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법당을 개원하던 당시 도반들이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며 회비를 모았던 것을 회

- 공단등(6cm) @ 2,500원
- 공단등(8cm) @ 3,000원
- 바림등(8cm) @ 3,000원
- 황금등(8cm) @ 3,300원

- 일반연잎 6,000
- 바림연잎 7,000
- 한지바림연잎 8,000
- 90,000원

국산 LED전구(50개)

###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 65,000
- 23cm (50구) @ 65,000
- 25cm (50구) @ 65,000
- 30cm (50구) @ 65,000
- 35cm (50구) @ 70,000
- 40cm (50구) @ 73,000
- 50cm (50구) @ 75,000
- 1 m (50구) @ 90,000
- 2 m (25구) @ 80,000

## 고급 국내산양초

밀 대(70) / 돈타레(40) / 원기둥(20) / 박스 @ 90,000원

동진특수양초

한지삼재품이 (한지) 700원(100개이상) / 정가 900원 / 포장: 봉투 삽입

삼베삼재품이 (삼베) 800원(100개이상) /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대/2도) 판매가 12,000원 / 10,000원 2도 (7x3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7.5x30cm

입춘대길(대/소)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대 7.5x28.5cm (흰색/노랑) / 소 5x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기: 60x7cm (빨강/노랑) / 포장: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베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10x15cm / 9x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x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들삼재, 놀삼재, 남삼재,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 A: 흰색 / C: 노랑-남마다 좋은 날 되소서 / B: 흰색 / D: 분홍-참 좋은 인연입니다.

# “봉사·신행은 둘이 아닙니다”



2015년 11월 열린 미소원 개원 4주년 기념법회 모습. 미소원에는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성있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2015년 10월 부산구치소 교정 70주년 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여받는 장유정 이사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장 이사장은 구치소에서 정서지원 상담도 진행한다.



미소원 독거어르신 장수기원 사진촬영 행사 모습.



2015년 12월 24일 성탄절 기념 반찬봉사에 나서시는 장유정 이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2012년 10월 국립마산병원 위문활동

상했다. “한 달에 10만원, 혹은 5만원, 하루에 천원 등 각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팀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고 법당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번은 폐지를 주위 모으시던 할머니가 법당을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 2만원을 내고 가신 일도 있었어요. 이 정성들을 모았으니 더욱 열심히 회합할 일만 남았죠.”

개원 이후 미소원은 그동안 진행한 나눔 활동을 쉬지 않았다. 신심으로 이루어진 봉사의 마음에 전문성까지 갖추기 시작했다. 장 이사장은 2004년부터 준비한 사회복지사 공부에 상담공부까지 마쳤다. 이후 장 이사장은 전문 상담가로 나서고 있다.

또한 미소원에 있는 도반들도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소년원,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가정 돕기, 제3세계 우물 파기, 한국JTS 북한 돕기, 말기암 환자 전화상담, 요양병원 목욕봉사, 무료 돌보기 행사, 번기 교제, 연료비 지원, 군부대 후원, 다문화 가정 자격증 취득 후원 까지 미소원의 활동과 손길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매주 목요일 독거어르신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반찬 봉사는 위생, 건강, 정성까지 소문이 자자하다.

전법과 인재봉사를 위해 나아갈 것  
“앞으로 미소원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잊지 않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반

## 향후 5년간 미소원 차기 구성원 모집 도반 자녀 모아 청년회 구성·훈련도 “전법활동·인재봉사에 박차 가할 터”

들은 집에 결혼, 칠순 등 잔치가 있거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회합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눔이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이유를 나눔과 봉사에서 찾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도 이분들 덕분에 삶의 힘을 찾는 것이구요.”

장 이사장은 앞으로 미소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전법 활동과 인재 봉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합니다. 꿈꿨던 생각을 해보니 병원에 누워 있는 아픈 사람도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더군요. 방송과 신문의 힘이 굉장하니 말이예요. 어디서나 티비와 핸드폰, 신문을 접할 수 있잖아요. 불교를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이사장은 앞으로 5년 동안 미소원을 이끌어 갈 차기 세대를 위한 구성원 모집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미소원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 팀을 구성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모

아 청년회를 구성하고 이 미소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훈련 할 계획입니다.”

장 이사장을 만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다. 동지를 지내고 하루 정도 지나서일까 어둠은 일찍 찾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법당으로 누군가 들어와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현재 미소원에서 매주 목요일 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김화숙 팀장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바로 그녀를 불러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둘의 눈빛은 신뢰와 따뜻함 그리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가득하다.

장유정 이사장을 바라보며 김화숙 팀장은 말한다. “미소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봉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큰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죠.”

장 이사장은 요리를 하다 다친 김 팀장의 손을 말없이 감싸 잡았다.

“도반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도반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복도에 걸린 미소원 간판 위에 글이 눈에 들어온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1번지 이곳은 미소원입니다.”

봉사는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이미 웃음이 가득한 곳, 미소원. 그들의 행복 가득한 미소가 세상에 가득하길 바란다. 부산=하성미 기자

### 전법일기

## 鐘이 얼어 깨떡기도 하지만...

을미년 한해가 저물고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해바닷가와 높은 명산에는 떠오르는 새 해를 맞이 한다는 마음에 떠들썩한 인파들이 가득하다.

조계사가 있는 서울 종로 한복판에는 보신각 종소리를 듣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마다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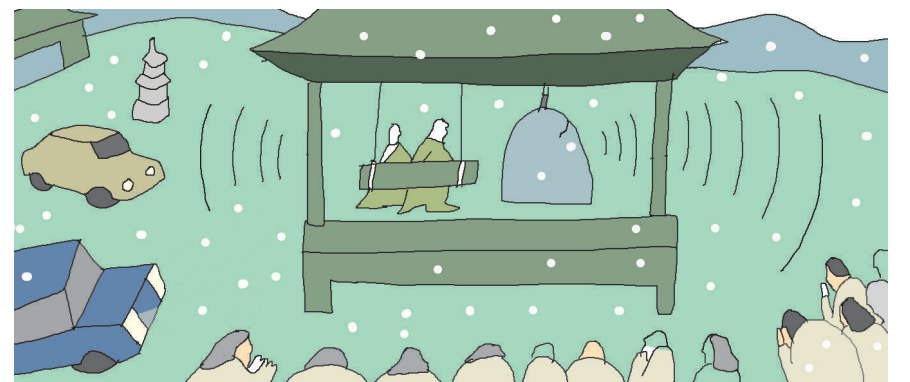
이러한 새해를 맞는 풍경은 군부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좀 더 의미 있게 한해를 보내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군사철에서도 ‘타종식’이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부대 지휘관과 예

발이 날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다.

타종식을 하던 날도 엄동설한이라는 말에 걸맞게 매우 추운 날이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두런두런 모여서 순서를 기다리고, 필자와 사단장님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타종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종을 치는데 소리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전에 없던 쇠소리와 ‘지지직’ 하는 잔향이 들리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종을 다루는 불자님께 연락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종이 깨졌다고 했다. 날씨가 추웠던데도 올바른 추운법을 모르는 이들이 힘껏 종을 울린 것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그 군법당의 종은 깨진 채로 자리를 잡고 몇 달뒤



그림·박구원

하부대의 지휘관들, 어떤 사찰은 민간 단체장들까지 어우러져 번갈아 종을 치며 한해를 맞이한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중생의 마음속 번뇌를 깨우고 해탈에 이르게 하고자 사찰에서 울리는 범종소리는 이순간만큼은 많은 중생들의 염원을 담아 울린다. 이 타종식이 군 장병들에게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

평소에 스님들이나 군중병들만이 울릴 수 있던 범구인이라, 너도 나도 올려보고 싶어서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범종만큼은 울려보겠다고 타종식에는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다른 신앙을 지닌 간부들도 있다.

범종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철의 군승들은 연말이 되면 늘 타종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도 복이 많아선지 가는 곳마다 범종이 있어서 해마다 타종식을 진행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법당에서 타종식을 할 때였는데, 이 사찰은 해발 700미터 고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가야산 해인사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다. 매우 추운데 얼마나 추운 곳이라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시 눈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또 한 번은 청원사에서의 타종식이 문제였다. 철원도 화천과 같이 매우 추운 곳이다. 이미 한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후로는 종을 상하게 한 일은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조명이 말썽이었다. 전날까지 멀쩡히 잘 작동하던 가로등이 그날따라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님이 올 시간엔 다 되었는데 조명은 켜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불빛이라고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준비한 모닥불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에이 모로가도 서울만 가자’라는 심정으로 참석한 불자들의 차를 종각 주변으로 빙둘러 세웠다. 시내의 차를 둘러세워놓고 일제히 전조등을 켜다. 자동차 조명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어정쩡했지만 사단의 타종식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 타종식을 준비하며 조명부터 확인했다. 종도 깨먹고, 자동차 조명을 비취가며 하기도 한 사연 많은 타종식이지만, 한해를 맑은 종소리로 맞이하기 위해 한결같이 준비할 것이다.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 미산 천강 큰스님 법왕즉위 12주년 국태민안 평화대법회



불기 2559년 12월 24일(서기 2015년 12월 24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화사 대법당에서, 세계불교미래법왕 즉위, 교단문화발흥 총무원 주관으로 미산 천강 큰스님 법왕즉위 12주년 기념 국태민안 평화대법회가 봉행되었다. 이 법회는 인류평화와 행복이 그리운 때 열리는 법회이니 만큼 불교계가 큰 관심을 갖는 행사였다. 이 법회에서는 450여 종단대표들이 2017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자천강 법왕을 추천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계가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관: 문화투데이) 하였으며 용호사 관내 불우이웃성금 전달 및 포교대상 시상식, 표창장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 외에도 광복70주년 2015 제 1회 호국평화대상 수상자로는, 국회의원 오제세, 前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장군, 가수 박승희, 교단문화발흥 이사장 유육자, 불교법사사회 교육원 법계고시 최고위원장 석보당, 세계불교 미래법왕 즉위 기념 지정장 석법륜 등도 수여했다.

만찬 및 송년회가 이루어진 행사 2부에서는 가수 라성 등이 흥을 돋우었고, 참석한 대덕 큰스님 및 사부대중들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세계불교 미래 법왕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여법하게 법회를 마쳤다.

또한, 광복 70주년 2015 제 1회 호국평화대상 시상식을 봉행(주최: 세계불교미래법왕 즉위평화위원회, 주

### 사찰연등 및 전선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추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공단연등(고리용)

노원(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 제등행렬용품

일사형, S형, T형리형

LED배서형, LED홀더형, 견전지초

▶ 환경, 탐욕이, 각종 행사에 적합

###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